

#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2/3 ~ 1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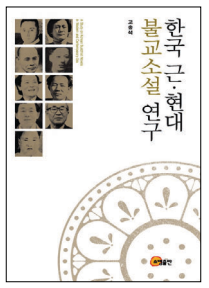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집으로 가는 길은 어디서라도 멀지 않다	원철	불광출판사	6	빅 마인드	앤스퀘어	정신세계사
2	인생수업	법륜	휴	7	흔적 없이 나는 새	수물	김영사
3	백일법문(개정증보판)	성철	장경각	8	나는 그곳에서 부처님을 보았네	제1회 신불수기 공모 당선작	모라나무
4	사찰의 비밀	자현	담앤북스	9	불교는 무엇을 말하는가(개정판)	김윤수	한산암
5	승만경을 읽는 즐거움	일진	담앤북스	10	미술관에 간 불다	명범	내물상사



## 양견식 <석사자상>에서 한승원 <초의>까지

한국 근·현대 불교소설 연구

고승석 지음 | 소명출판 펴냄 | 1만7천원



불교사상은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을 관통하는 한국 전통 문학 사상의 토대이다. 고대에서 현대에까지 불교사상을 바탕으로 한 문학작품은 다양하게 창작되어 왔다.

전통 문학 사상으로서는 불교 사상을 주제화한 불교소설은 우리 민족 정신사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불교소설은 우리 문학사에서 리얼리즘과 모더니즘의 소설에 비해 제대로 평가되지 못한 면이 없지 않다. 책은 일제강점기인 1910년대의 최초 불교소설에서부터 2000년대까지의 불교소설 가운데 대표적인 작품을 살펴봄으로써 불교소설의 근현대 소설사적 위상과 가치를 고찰했다.

불교소설은 조선시대를 지나 현대에 이르기까지 면면히 이어지고 있다. 1910년대는 시대적인 상황으로 인해 불교의 세계관과 사상을 주제로 하는 불교소설은 양견식의 작품을 제외하면 찾아보기 힘들지만 1930년대 이후부터 해방 이전까지는 한용운, 현진건, 이광수 등이 있었고, 1960~1970년대에는 김동리, 조정래, 김성동, 그리고 1990~2000년대에는 고은, 한승원 등이

을 이고 있다. 책은 '불교소설'의 개념을 흥기삼의 견해에 의거하면서 '불교의 세계관과 사상이 진화한 것'으로 한정해 정의한다. 흥기삼은 불교문학을 ① 불교 경전 문학, ② 붓다의 가르침을 세계관적 토대로 수용한 창작 문학, ③ 경전과 창작의 중간 지대에 걸쳐 있는 불교문학의 자연(원시, 불교 설화, 승전류, 염형록 등)으로 나누고 있다. 책은 '② 붓다의 가르침을 세계관적 토대로 수용한 창작 문학'을 불교 문학으로 보고, 이를 연구 대상인 소설에 한정한다. 이와 함께 불교의 사상이 일부 소개되거나, 불교의 단편적인 이미지(승려, 사찰, 불교 상징물, 설화, 경전)가 부분적인 소재나 배경으로 등장한 소설은 '불교소설'로 분류하지 않았다. 근본적으로 소설 전체의 주제가 일관되게 불교 사상으로 관통하는 경우만을 '불교소설'로 한정했다. 따라서 책에서 말하는 불교소설은 '불교의 세계관과 사상을 주제의 식으로 내세운 창작 소설'을 말한다.

내용적인 면에서는 네 가지 측면으로 고찰했다. 첫째, '연기(緣起)'는 데리다의 차연(差延)과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 둘째, 유식(唯識)의 제8식인 아뢰야식은 2천 년 전에 프로이트의 '무의식'을 설정했다는 점. 셋째, 대승불교 사상의 '위로는 붓다의 깨달음을 추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교화한다(上求菩提 下化衆生)'는 보살 사상이 현대 지식인의 사회적 책임과 실천의 당위성을 부여하는 논리가 된다는 점. 넷째, 선(禪)은 본래 내면에 갖추어진 본성으로

서의 불성을 자각함으로써 열반에 이를 수 있다는 견성성불을 내세우는데, 이는 현대 동양의 휴머니즘 사상이 될 수 있다는 점. 이러한 네 가지 외에도 대승불교 사상에는 발전적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사상이 적지 않다는 것이 저자의 생각이다.

책의 논의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어진다. 2장에서 연구 방법론으로 대승불교 사상 가운데 가장 핵심적이며 보편적인 것으로 보살사상, 무아사상, 선사상을 살펴보고, 3장에서는 일제강점기의 불교소설

1910년대~ 현대까지 불교소설의 근현대 소설사적 위상과 가치 조명  
"리얼리즘·모더니즘이 못 다룬 종교·영성적 소재와 주제 다뤄" 작품 하나하나 세밀하게 짚어줘

을 짚어보았는데, 해당 작품은 양견식의 <석사자상>, <한일월>, <아의 종교>, <오!>와 한용운의 <박명>, 현진건의 <무명탑>, 이광수의 <원효대사>이다. 4장에서는 1960~1970년대의 불교소설을 살펴보았는데, 해당 작품은 김동리의 <등신불>, <극락조>, <미륵광>, <눈 오는 오후>, <저승세>, <호원사기>와 조정래의 <대장경>, 김성동의 <만다라>이다. 5장에서는 1990~2000년대의 불교소설을 분석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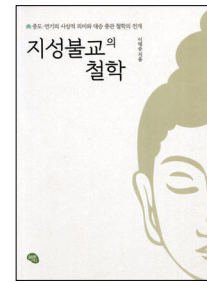
데, 해당 작품은 고은의 <화엄경>, 한승원의 <초의>이다. 6장에서는 앞서의 작품 분석을 바탕으로 전체 불교소설의 불교 사상적 특징을 정리하는 것과 함께 불교소설의 근·현대 소설사적 의의를 살폈다. 7장은 결론으로, 대승불교 사상의 연구 방법론과 불교소설 분석, 불교소설의 근·현대 소설사적 의의를 요약하는 것과 향후 과제를 확인했다. 마지막에 덧붙인 보론에서는 이광수 소설의 대승불교 사상을 조망했다. 춘원의 불교사상적 기원이 유아기에 있으며, 그의 일생을 통해 불교 사상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었음을 밝혔다.

책을 통해 살펴본 불교소설의 근·현대 소설사적 의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불교소설은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는 전통을 자랑한다. 또한 불교소설은 리얼리즘 소설과 모더니즘 소설이 다루지 못하는 종교·영성적 소재와 주제를 다룰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불교소설이 기반한 대승불교 사상은 현대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불교소설은 탈식민주의적 관점에서 불교 문화권의 '아시아 불교소설 문학'을 정조할 수 있다. 저자는 이처럼 불교소설의 중심적 의미를 큰 관점에서 밝히고 있지만, 불교소설 작품을 하나씩 짚어보는 세밀한 과정도 놓치지 않았다. 불교사상을 친절히 설명하고 여러 소설작품과 연결지었기 때문에 불자가 아니더라도 약간의 관심만 있다면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다. 깊이가 느껴지지만 어렵지 않은 점이 이 책의 큰 매력이라고 할 수 있다. 박재원 기자

## 불교엔 지성의 발로인 '철학' 있어

지성불교의 철학

이태승 지음 | 울리브그린 펴냄 | 1만8천원



지성불교, 이 말은 필자가 불인 말로서 '종교로서의 불교의 성격 가운데는 인간의 지성적인 요소의 발로 즉 철학적 성격이 짙게 담겨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이 지성불교의 성격을 가지는 불교가 대승불교의 철학을 거쳐 본격적 그 체계가 정립된다는 의미로서 불인 이름이 본서의 제목인 '지성불교의 철학'이다.

지성불교, 즉 초기불교의 성격에는 인간의 정신상 중요한 기능을 지칭하는 지성의 역할이 그 창시자인 고타마 붓다에게서 극단적으로 발휘되었다는 역사적 의미를 고찰의 대상으로 한다. 다시 말해 고타마 붓다에게서 드러나는 지성의 발로를 담고 있는 사상적 개념이 다른 아닌 중도와 연기의 개념으로서, 이 개념들이 가지

불교 속 '지성' = 중도·연기  
"오늘날 불교 철학적 의미 되새"

는 의미와 그 역사적 결과를 인도불교의 역사 속에서 살펴보고자 했다. 이 중도와 연기의 개념은 특히 대승불교의 흥기와 더불어 그 철학적 체계를 보다 완비해 가게 되는데 그것이 불교의 중요한 체계로서 초기의 반야사상과 나귀주나의 사상적 의미를 이어받는 중관철학이라고 할 수 있다. 곧 초기불교에서 보이는 이러한 중도와 연기의 개념은 대승불교의 철학체계의 핵심 개념으로서 더욱 세밀하게 고찰되어지며 또한 그러한 고찰의 전통은 산타라크쉬타에게서 보듯 인도불교의 후기에 이르기까지 계속되고 있음을 보다 확실하게 드러내고자 했다. 다시 말해 책은 '지성불교=대승불교=보살불교=중관불교'의 개념적 동일성을 구체적으로 논증하고자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지금 '지성불교'를 논해야 하는가. 저자는 오늘날의 불교는 철학적 의미가 되새 있다고 전제한다. 전통종교나 종교문화로서는 존재한다하더라도

우리의 삶에 뚜렷한 윤리적 이념이나 도덕적 실천을 주는 철학적 메시지로서의 의미를 잃고 있다는 우려가 이번 출간의 이유다. 따라서 불교의 궁극적인 지향점인 인간의 도덕적 완성이라는 보편적인 윤리의 입장을 전제하는 한, 동시대 불교 철학자라면 불교의 사상적 지향점 역시 보편적인 가치에서 지향 가능한 철학체계를 보여줄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책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제1장에서 제3장까지는 초기불교에 나타나는 지성불교의 성격과 그 성격이 대승불교에 이르러 구체화되는 과정을 개설했다. 즉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불교에 대한 고찰과 그 지성적인 성격으로서 불교를 의미하는 지성불교의 성격을 초기불교 속에서 살펴보고 그러한 전통이 대승불교로 이어지는 것을 살펴보았다. 따라서 그러한 지성불교의 의미를 갖는 중도와 연기의 개념을 초기불교의 경전에 근거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러한 개념의 철학적 토대가 나가르주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을

고찰했다. 그리고 제4장에서 8장까지는 초기불교 이후의 지성적인 의미가 대승불교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를 역사적 경과 속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이 부분은 지성불교의 성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되고 나타나고 있는가를 보다 실제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곧 대승불교의 실질적인 전승자로서 보살집단의 구체적인 실태와 대승불교도들에 의해 만들어진 경전 속에서 그러한 개념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곧 초기대승불교경전으로 간주되는 반야경전 가운데서도 동아시아에서 특히 중요시 되는 <반야심경>속에서 그러한 중도와 연기의 개념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고찰한 것이 제6장 '범본(반야심경)에 나타난 자성공의 의미'이다.

세 번째로, 제9장과 10장에서는 이러한 대승불교의 역사와 사상 속에서의 구체적인 모습을 근거로 하여 재삼 지성불교의 철학적 의미를 살펴보았다. 제9장에서는 대승불교의 중관철학에 의거해 중도와 연기의 개념이 더욱 체계화되고 심화된 내용에 근거해 지성불교의 철학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했고, 제10장에서는 대승불교의 전승자로서 보살들에 의해 실천적으로 드러난 구체적 행위를 살펴보았다.

박재원 기자 wanihollo@hyunbul.com

## 문명의 시작 '책판'

책판-나무에 새긴 문명

안준영 지음 | 고려대학교출판부 펴냄 | 5천원



인류는 오래 전부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소통하고 그 소통을 기록으로 남겨왔다. 문자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인류는 '기록'에 대한 의지와 노력을 더욱 기울였고, 대량인출과 지속적인 인출을 가

능하게 한 책판을 만들어냈다. 책은 그 '기록'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온 '책판'을 조명한 것이다.

지식, 정보 축적을 가능하게 한 책판은 중국에서 시작되어 한국, 일본 그리고 베트남 등으로 전해져 발전해왔다. 우리나라 책판은 대장경 등 불경과 유학 도서를 비롯하여 한글, 미술과 음악 등 고려와 조선시대를 아우르고 있는 기록문화의 꽃이다. 책판의 문화는 서지(書誌)와 장정(裝幀)문화까지로 확장됐고, 종이염색과 합(函)으로까지 확장됐다. 이러한 문화는 소명(書名)을 가진 장인들에 의해 유통 전승됐다. 책은 이러한 전승문화를 오롯이 잇고 있는 대장경 문화학교 이산 안준영 대표가 우리나라 인



대장경 경판

쇄문화의 전형을 소개하는 책이다. 책은 책판의 역사, 재료와 도구, 판각 도구와 과정, 책판의 인출 과정, 책의 장정과 제본 과정, 전승 활동 등을 다루고 있다.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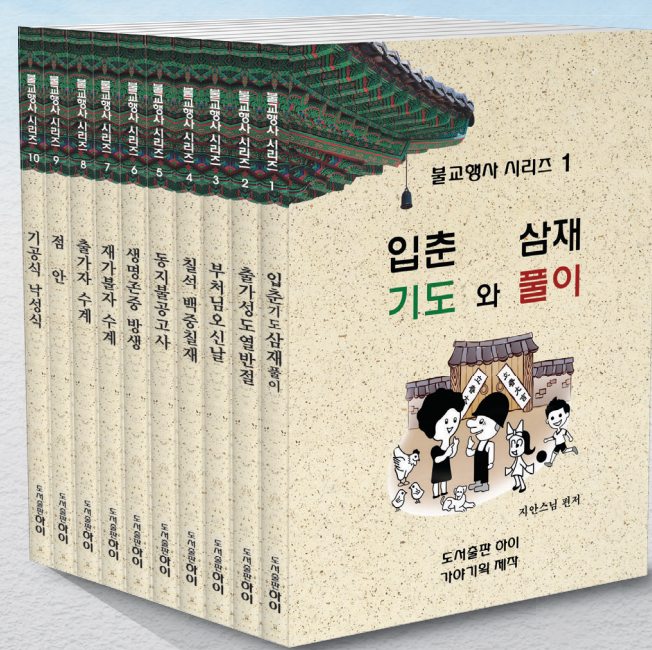
은 책판 제작과정의 처음부터 마지막 단계까지, 긴 시간 동안 하나하나 배워온 필자의 삶이 함께 담겨 있다. 책판과 관련된 많은 성과가 축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자가 책을 출간하게 된 것은 책판을 복원하는 입장에서 각각의 복원과정에 대한 실증적 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저자의 실제 경험과 문헌, 구전을 바탕으로 목판 인쇄의 체계적인 정리를 시도한 탐구와 노력이 묻어 나오는 책이다.

이 분야의 전문서적이 많지 않고 전통시대와 단절된 오늘날 판각에 대한 각 단계별로 이론과 실제, 현장을 사진으로 알기 쉽게 정리하여 관련 분야는 물론 한국학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지침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재원 기자

# 불교행사 지침서

알기 쉽고!  
간편하고!  
편리하게!

지안스님이 엮어가는  
불교행사 정진기도  
시리즈



입춘, 출가성도열반전, 부처님 오신날, 칠성불공, 백중칠재, 동지불공 고사, 방생, 재가불자 수계, 출가자 수계, 점안, 가공식 낙성식 기도와 예식 행사, 공양차림은 어떻게 지내고 지켜야 되는지 전10권으로 시원하게 알려준 지안스님의 지침서

입춘은 탄생과 생명력을 상징, 불교신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중생구제 기도로 절에가서 불공을 드린다. 입춘정의, 입춘기도준비, 기도순서, 기도진행, 삼보통칭, 신중칭, 염송기도, 삼재풀이 민속식, 삼재풀이 기타식, 입춘추, 삼재부족등 수록 불교에서는 살생을 금하는것은 소극적인 선행이고 방생을 하는 것은 적극적인 선행이다. 준비,식순,진행,방생문,여류방생 기도문, 조류방생기도문, 방생기도 소원지, 방생사진, 방생 이야기, 방생 공덕, 용궁 치성 방생등 수록. 낮의 길이가 길어지는 시작을 태양의 부활로 여겼으며, 재액 초복을 위해 집안신에게 팔족을 올리는 세시풍속의 의례적 고사로 불교신자들은 절에가서 불공을 드린다. 동지 정의, 세시풍속, 불공 준비, 순서, 진행, 삼보통칭, 신중통칭, 신중공공, 신중염송, 영단 제례, 영가 시식, 동지 고사, 팔족 예화등 수록.